전교생 51명 미니학교의 '특별한 교육'

나주 북초등, 모범학생 '쿠폰 시상제'

'1인1통장'과 연계 경제교육 효과도

전교생이 50여명에 불과한 미니학교의 교육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 송현동에 위치한 나주북초등학교(교장 김경님)는 학생수가 불과 51명으로, 매년 통폐합 대상학교로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이 학교가 올해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최초로 모범학생들에게 포상용 쿠폰을 지급하는 '쿠폰 시상제'를 실시하고 있어 화제다. '쿠폰 시상제'는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을 칭찬하기 위해 올바른 생활규칙을 준수하는 학생을 즉석에서 포상하는 제도다.

수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비롯해 체험학습과 방과후 교육활동 등 각종 봉사활동에 투철한 학생 등에게 최저 500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7단계 쿠폰을 발행, 즉석에서 지급한다.

나주북초등학교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자칫 어린 학생들이 황금만능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 각종 부작용을 고려해 미리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충실한 학교생활을 독려하는 의미도 적지 않지만, 학생들이 '1인 1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 관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과감히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6학년에 재학중인 이영주 학생은 "쿠폰을 받기 위해 모든 학생들이 크고 작은 일에 서로 모범을 보이려고 한다" 며 "쿠폰을 받으면서 칭찬받고 시상금을 모아가는 것이 마냥 즐겁다"고 말했다.

김경님 교장은 "선행학생에게 즉석에서 지급한 쿠폰은 6학년 졸업때 포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과거에 도서상품권을 지급했던 것보다 선행 학생들에게 즉석에서 쿠폰을 지급하다보니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북초등학교는 이번 '쿠폰 시상제를 위해 150만원의 학교예산을 책정, 매월 15만~20만원 가량의 쿠폰을 발행해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광양 호우피해 복구비 285억 확정

지난달 15일과 16일 내린 평균 283mm의 집중강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광양시의 피해복구액이 28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광양시 호우피해 복구계획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16억원을 포함한 국비 163억원, 지방비 12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항구복구대상으로 선정된 섬진강 인근지역인 진월면 망덕리는 산사태로 인해 상가 7동, 창고 1동이 파손돼 1억5천만원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매년 호우피해가 적지않아 국비 복구비 75억원을 확보했다.

수어댐 하류에 위치한 진상면 섬거리 신시마을 일원 역시 호우때마다 주택과 재래시장 등이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어 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재정비사업비 44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이전인 지난달 13일 완벽한 재난종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데다 재해피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항구적인 처방을 내린 광양시 재해대책이 맞떨어져 기대보다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47건의 피해지역에 대해 담당부서를 지정,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친환경농업교육관 '전남 알림이' 앞장

道, 지난 2006년 담양·영암·보성 설치

체험·귀농교육 등 소비자 발길 줄이어

전남지역 민간 친환경농업교육관이 유기농업 기술보급과 소비자 체험교육 등 '전남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유기농 채소와 과수 주산지인 담양과 영암, 유기농 벼 주산지인 보성 등 3곳에 지난 2006년 설치된 친환경농업 교육관을 거쳐간 농업인과 소비자가 올해만 5천5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보성군 벌교읍 '우리원 친환경농업교육관'(대표 강대인)은 올들어 2천400여명이 유기농 벼 재배기술과 다양한 체험교육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 차장, 일본 가나가와현 하다노 의원과 농협 관계자 등 국내외 농업 전문가의 발길도 이어졌다.

강 대표는 "교육과 체험관광에 대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8월 이후에도 500여명의 귀농교육과 소비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교육 일정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담양군 수북면 '두리 친환경농업교육관'(대표 김상식)도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 지 불과 5개월만에 2천700여 명의 소비자 등이 다녀갔다. 이 교육관은 유기농 채소류 등의 재배기술과 대도시 부녀회,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교육이 인기며 앞으로도 2천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성호 친환경농업과장은 "도내 민간 친환경농업교육관이 선진화된 유기농업 재배기술, 농자재 제조, 유기 가공식품 제조기술 등을 바탕으로 저비용으로 기술을 보급하고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개발해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합원에 희망주는

강·진·농·협

작년 이어 올해도

주민세 일괄 납부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농촌경제의 현실에서 조합원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있는 농협이 있어 농업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강진농협(조합장 김근진)은 지난 최근 조합원 1천650세대에 대해 군에서 부과한 900여만원의 주민세를 대신 일괄 납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진농협이 지난 2008년에 이어 2연 연속 조합원의 이익과 권익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원사업의 일환이다.

강진읍 남포마을 이태형 조합원은 "개인별로 보면 작은 금액이겠지만 조합원 모두를 두고 보면 많은 금액"이라며 "어려운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민세를 대신 납부해주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화순 동복초교 개교 100주년 기념 지난 15일로 개교 100주년을 맞은 화순 동복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기념식에서 사랑의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지난 1908년 8월 2학급 규모의 '동복 공립보통학교'로 문을 연 동복초교는 올해까지 9천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밀, 새 소득작목으로 키운다

장성군 비료대금 지원하고 재배요령 지도

장성군이 오는 2012년 수매가 폐지되는 보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소득작물로 밀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부터 밀 재배 희망농가를 조사해 현재까지 101농가 150ha 면적의 신청을 받았다. 오는 20일까지 추가 재배면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는 장성군이 당초 예상면적 100ha를 훨씬 추가하는 면적이다.

이에 장성군은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 밀재배 전체 농가에 대해 10a당 28만원에 달하는 비료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단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밀 재배요령도 지도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도 강구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역농협 또는 개인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 수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성군은 밀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승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밀 가격의 폭등으로 국산밀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제빵원료 및 잡곡으로 혼용, 선식·미숫가루 등으로 소비돼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밀은 쌀보리에 비해 10a당 수확량이 많고, 40kg 1포당 가격도 4천원 가량 비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정학수 전 차관 고문 위촉

고흥군유통(주)

고흥군은 지난 14일 농업발전과 고흥군유통(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학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병종 군수는 "정학수 전 차관을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고흥농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선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학수 고문과 고흥군유통(주) 자문위원단은 분기 1회이상 협의회를 통해 고흥농업과 고흥군유통(주)의 내실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담양 '착한가게' 1호점 현판식 담양군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금성면 파라다이스 식당에서 어려운 이웃돕기에 앞장서온 '착한가게' 1호점 현판식을 가졌다. 공동모금회는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급식사업대상 경로당과 1 : 1 결연을 맺고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해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관내 모범음식점 24개소를 '착한가게'로 지정했다. 〈담양군 제공〉